

성보보존법 33년만에 첫 개정

박물관 관련 조항 신설... 활성화 기대 해당 사찰 주지에 보존·관리 의무 부여

1972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개정도 없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던 조계종의 성보보존법이 드디어 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1월 27일 성보박물관의 지위·감독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및 체계적인 성보보존을 위한 사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성보보존법에서 모호했던 조항들을 명확히 하고, 성보박물관 관련 내용을 대폭 신설했다.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31개소(개관예정포함)에 달하는 성보박물관이 성보보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성보박물관이 활성화 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성보박물관을 "성보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박물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한 박물관, 전시관, 유물관 등"으로 정의(제16조 신설)하고, 관장 및 학예연구실, 사무국의 역할을 명문화(제20조 신설)해 성보박물관 및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한 성보박물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신설된 제21조에 따르면 성보박물관은 종량이 정한 등록요건에 맞추어 등록해야 하고,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요건에 위반하여 운영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찰 주지의 성보 관리의 의무도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성보 보유사찰 주지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규정(제4조 개정)하는 한편, 성보 발견·멸실·도난·훼손 및 성보의 문화재 지정의 경우에는 총무원장에게 보고를, 경내지에서 지표조사 또는 시·발굴조사 또는 전통사찰내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경우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했다.(제5조 개정)

그밖에 개정안은 △성보관리인에 대한 교육 실시(제6조 개정) △성보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성보보존위원회 설치(제7조 개정) △성보 지정 건의에 있어서 성보보존위원회의 자문을 심의로 변경(제11조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성보보존법은 20일 간의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총무원회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군중병 모집정원 미달

개신교 경쟁률 8.8:1...군승특별교구 필요성 제기

병무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불교 군중병 공개 모집이 정원미달로 마감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월 20일 마감한 올해 군중병 모집은, 개신교가 12명 모집에 106명(8.8대 1)이, 천주교가 13명 모집에 34명(2.6대 1)이 각각 응모했으나 불교만 14명 모집에 11명(0.8대 1)이 응모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3~5월이 군 입대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유복 불교 군중병만 미달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 관계자들은 "같은 결과가 군승특별교구 설치 등 군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무청은 군중병과 보좌와 군법당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 군중병의 지원자격을 불교 전공 1년 이상 수료자나 수계 후 3년 이상 경과자로 자격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기독교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50여 곳에 이르는데 반면, 불교계는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등 단 3곳뿐이다. 군중병에 응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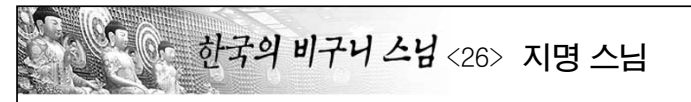
자격과 원력을 가진 인력이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불교계 청소년 포교의 부실, 홍보부족 등도 이번 미달사태에 한몫했다.

따라서 군포교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위한 군승특별교구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군법사 130명, 군법당 400여곳, 신도 15만을 거느리고 있는 '군불교'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군포교인력확충, 포교정책 수립, 효율적 군법당 운영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단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군승제 333운동'과 '비전 2020' 운동을 통해 2020년까지 8만 연합회 회원 군인 확보, 전군의 75%를 개신교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공격적 선교전략을 세우고 있어, 불교계도 하루빨리 '군불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은 "군불교위원회가 홍보를 강화하고, 면담인 군법사들이 직접 군중병 지원자들을 유치하는 등 군중병 모집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26> 지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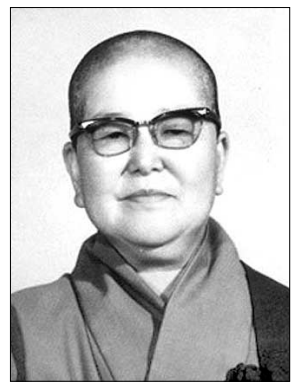
70여년 한결같이 참선 정진

"어린 것이 밟고도 얇한 길을 오게된 것은 전생애 숙연(宿緣)이 있어서 그러하다. 공부 잘하면 성불할 것이다."

금강산 유점사 조실로 있던 만공 스님으로부터 이런 수기를 받고 불법에 인연을 맺은 12살 어린 소녀는 이제 미수를 바라본다. 화운사 능인선원 선원장 지명 스님(85)은 13살 되던 1932년 12월 수덕사 금선대에 어의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고 머리를 깎았다.

1921년생인 지명 스님은 어린나이에 출가해 은통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 공부할 마음만 앞섰다. 그런 스님에게 만공 스님은 몇 해동안 노스님들의 시봉만을 맡길 뿐 선방근처는 일선도 하지 못하게 했다.

갖은 고생을 물리치고 어른 스님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수덕사 강당에서



특히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42년 석우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45년 만공 스님의 열반 추도문을 직접 썼다. 얼마전 입적한 송산 스님과도 법담을 나누는 도반으로 오랜 세월을 같이 했다.

스님이 첫 주지 소임을 살게 된 것은 53년 서산 개심사에서

만공 스님에게 수기받고 불법과 인연 조계종 최고 비구니 선객으로 존경받아

사집을 마쳤다. 19세가 되던 해 겨울 만공스님의 허락으로 겨우 선방에 방부를 들일 수 있었다.

이듬해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던 지명 스님에게 만공 스님은 "아난존자에게 가심이 도각문 전에 잠간적(御前 御前) 하라 하니 아난이 대답을 못하교 교족(脚)공부 절일(切)야를 하여 활연대오(豁然大悟) 하였는데, 지명아 너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명 스님은 "겪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겪으란 말입니까?"라고 답했다. 만공 스님은 "더더욱 공부 열심히 하여라"며 격려했다.

얼마뒤 만공 스님은 "성품이 공하니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비추는 달빛은 시방세계를 비추더라(性空境寂 心月照十方)"라는 계문과 월조(月照)라는 당호를 내려 지명 스님의 공부를 인가했다. 이 무렵 지명 스님은 "홍중에 의정(疑情)이 가

었다. 황폐했던 개심사를 재정비 한 뒤 얼마 안 있어 우암 '차재운' 거사가 창건한 화운사의 주지직을 제의 받았다.

62년 화운사를 맡아 강원을 열고, 강당, 요사, 대웅전, 선원을 비롯한 대각불사를 이뤄냈다. 85년 강원을 닫고 다시 88년 선방을 열면서 수많은 제방 수좌들과 함께 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불편해 대중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결계가 시작되면 선객들을 제접하고 공부를 점검한다.

"중의 본분은 오로지 정진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지명 스님은 요즘도 하루를 여윌하게 수행정진하고 있다. 일생을 참선 정진한 비구니계의 원로선지식으로 지난해 하안거에도 선원장으로 수좌회 방합록에 방부를 올린 조계종 최고 비구니 선객으로 후학들의 끝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

조용수 기자

징용자 유골봉안 어떻게 이뤄지나

대상 30만구 추정... 6월부터 착수 계획

한일 불교계가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 봉송작업에 적극 나선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월 28일 총회를 열고 한국인 징용자의 유골을 송환키로 결의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3월경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합동 위원회 개최 등 유골봉환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오는 6월 이내에 도쿄(東京) 유엔지(佑天寺)에 보관 중인 한국인 징용자의 유골 705구를 시작으로 일본과 동남아 시베리아 등지의 한국인 유골까지 봉환한다는 방침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이들 무연고 유골을 양평군 양평공원으로 봉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일 불교계는 지난해 6월 10일 일본 도쿄 유엔지(祐天寺)에서 합동위원회를 열고, 일

본의 24개 사찰에 보관 중인 한국인 징용자의 무연고 유골을 봉환키로 결의한바 있다.

한국불교계가 유골봉환에 나선 것은 일본 불교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24개 사찰에 5만여구의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일본 불교계는 한국인 강제동원 명부도 작성해 그동안 꾸준히 국내에 알려왔다. 이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한 남한출신 유골 705구만 주장하던 일본정부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강제동원 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일 불교계는 유골 봉환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종교계가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만 8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강제동원된 한국인은 일제가 군수공장과 농장, 토목공사

장, 광산 등을 운영하던 일본, 중국 하이난섬(海南島),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끌려갔다. 해방 뒤에도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유골이 남아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종전 직후인 1948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연합군총사령부에 의해 봉환된 6000여구가 전부다.

우리 정부가 1966년 북한출신자 문제를 고려해 차선책으로 무연고자 유골을 일본내에 항구적으로 매장토록 요청하면서 일괄 인수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1969년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에 대해서는 연고자 요청에 따라 개별 봉환키로 양국이 상호 양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70~1998년 1192구의 일본 정부 보관 유골이 봉환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목탁소리

지난 1월 28일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이 남아시아 지진해 일피해 돕기를 위한 '자비의 탁발'을 실시해 모은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법정 스님에 따르면 교구본사 차원에서 탁발을 실시하기 하루 전 정제불명의 승복입은 사람들이 먼저 자비의 탁발을 사정해 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법장 스님은 "잘못된 것을 쉬쉬하며 덮어왔기 때문에 병폐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는 모두 공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실 승승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객승들이 '여비'를 위해 불교계 각종 행사마다 달려다니고, 조금이라도 '여비'를 챙기기 위해 고성과 욕설을 질러대는 모습은 이제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닐 지경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불교계를 강타한 서울 유아동보행사 폭력사태 때에는 어찌 이쪽 편이었던 객승들이 하루 만에 할 상황도 발생했다.

객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지난 1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처럼 다른 종단에서도 종단적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승승도 없으면서 스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선 범종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 (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유.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업)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업)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입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즐거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청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